

# 1초에 1기가... “차량 내 초고속 데이터 처리, 시스코와 맞손”

현대·기아차 커넥티드카에 탑재 ‘CES 2018’서 핵심기술 등 공개 2019년 협업 첫 차량 시장에 선보 차량 네트워크 고속화·효율화 집중



현재 차량 내부에 적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케이블(좌)과 현대·기아차가 2019년 이후 커넥티드 카에 적용할 예정인 네트워크 케이블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기아자동차의 커넥티드카에 초당 1기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깔린다. 현대·기아차는 9일(현지시간) 개막한 ‘CES 2018’에서 시스코와 공동 개발 중인 ‘차량 내 네트워크(인 카 네트워크, In Car Network)’의 4대 핵심 기술 및 사양을 공개했다. 시스코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기업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대·기아차와 세계 최고 기술력이 결집된 커넥티드 카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양사는 기술 협력 고도화와 실차 검증 테스트 등을 거쳐 2019년 이후 출시될 현대·기아차 신차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커넥티드 카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인 카 네트워크는 차량 내 데이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각종 커넥티드 카

기술 및 서비스를 차량이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본적인 토대다. 현대·기아차와 시스코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전 세계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게 될 커넥티드 카 시대를

선도하는 마켓 리더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와 시스코가 공동개발 중인 차량 네트워크의 4대 핵심기술이자 특징은 ▲이더넷 ▲통합 제어 ▲고품질 네

트워크 ▲차량 최적화 보안이다. 커넥티드카는 차량 자체 생산 데이터, 외부 송수신 데이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차량에 쓰이는 CAN (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은 데이터 처리 용량이 125~500kbps에 불과해 사실상 미래차에 적용할 수가 없다. bps는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시스코 동맹은 최소 100Mbps에서 최대 1G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차량용 이더넷 통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더넷을 사용하면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차량 내 전자 제어기기를 무리 없이 늘릴 수 있다. 아울러 현재 CAN 통신의 경우 각 차량 부품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장치별 제어장치를 두지만, 양사는 모든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소프트웨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시도한다. 양사는 고품질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차량 내 장치별로 발생 데이터 전송량을 조절, 전송 속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QoS(서비스 품질) 기술도 새로 적용할 계획이다. 외부의 비정상적 차량 네트워크 침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첨단 통합 네트워크 보안 기술도 양사가 개발하는 차량 네트워크의 강점이다. 황승호 현대차그룹 차량지능화사업부 부사장은 “미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현대·기아차는 세계 최고의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꾀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시스코와는 가장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차량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커넥티드카 신기술 혁신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그 첫 번째 단계로 2019년 양사 협업 결과가 적용된 첫 차량이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코 성장 전략 담당 루바 보르노 부사장은 “양사는 차량 네트워크의 고속화, 효율화에 역량을 집중해 차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 스마트TV, 세계 최고 보안 인증 획득

VOD 결제시스템에 사용자 우려 전라인 자사 보안기술 ‘녹스’ 적용



삼성전자가 보안 표준 기관 인증을 통해 스마트 TV 보안성을 입증했다. 기존 TV에 인터넷 기능을 더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TV는 PC에 이어 새로운 해킹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영화나 VOD 등의 구입을 위한 결제 시스템이 탑재돼 사용자들의 우려도 커졌다. 10일 삼성전자가 따르면 이 회사 스마트 TV는 3년 연속으로 TV업계 유일 국제공통평가기준 CC(Common Criteria)로부터 보안성 인증을 받는데 이어 지불 결제 서비스 관련 보안 인증인 ‘PCI DSS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2015년형 이후에 생산된 스마트 TV 전 라인업에 자사 보안 기술인 녹스

도 적용해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 전자 스마트폰, 스마트 TV, 가전 등에 적용된 녹스는 보안의 가장 기본인 하드웨어 보안을 비롯해 주기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등으로 스마트 TV 플랫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 TV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물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T커머스’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

춰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인 UL로부터 스마트 TV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 보안에 대해 PCI DSS 인증을 획득했다. PCI DSS 인증은 비자·마스터카드 등 5개 글로벌 카드사가 카드 회원과 관련한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보보안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국제보안표준규격으로, 신용카드사, 지급결제(PG)사, 카드가맹점 등이 주요 인증 대상이다. 삼성 스마트 TV에 탑재된 T커머스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 ‘체크아웃’은 녹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시큐어 키보드’와 ‘시큐어 숫자키’ 등을 지원해 신용카드 정보를 암호화하고 기기 안에 별도 저장되지 않게끔 해서 보안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보안 전문 기업 맥아피와 협력해 TV 전용 백신 소프트웨어인 ‘맥아피 시큐리티 포 TV’를 공동 개발해 삼성 스마트 TV에 탑재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채권단, 자구 이행 촉구

사측, 노조에 투쟁·파업 중단 요청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사측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자구노력 이행을 요청했다. 사측은 노조를 향해 투쟁과 파업을 중단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9일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자구노력 이행 요청’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채권단은 공문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과 금호타이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다각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 중이나, 만약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지역 경제계도 “금호타이어가 구조조정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사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이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는 적극적인 협력과 희생을 통해 회사를 우선 살리고 구조 조정의 수위와 고통분담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회사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노조의 협조를 구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월12일 경영정상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 축소 및 인원 감축, 일반직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분리에 따른 특수관계자 거래 개선과 판매

촉진을 위한 해외 영업망 정비 등을 통해 약 525억원 수준의 자구노력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개선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조 집행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는 “노조 집행부는 여전히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회사와 지역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책임한 투쟁과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피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며, 10일부터 근무조별 파업과 함께 24일에는 상경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회사의 생존 가능성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채권단과 시장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12월 급여에 이어 1월 정기상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이 바닥나고 1월 말 도래하는 막대한 차입금 상환과 계속되는 적자로 3중고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즉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채권단과 사장의 신뢰를 얻어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비롯한 전 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이 절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의 중심인 노조가 경영 위기를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투쟁과 파업을 중단하고 노사가 함께 전 구성원의 생존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회사는 전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대한항공 평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래핑 항공기 운영

대한항공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적극 알리기 위해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를 래핑한 항공기를 운영한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홍보 항공기는 A330-200 기종 1대로 지난 2일부터 6일 동안 래핑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8일부터 패럴림픽 폐막일인 3월 18일까지 전세계 하늘을 누비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홍보사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7월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을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엠블럼을 래핑한 항공기 10대를 추가해 총 12대의 홍보 항공기를 운영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지난달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객실, 운항, 정비, 공항, 기내식 등 다양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 래핑한 대한항공 A330-200 항공기.

직군의 대한항공 임직원이 동계올림픽 응원 메시지 릴레이 이벤트를 펼쳤다. 또 오는 18일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에 수호랑 반다비 인형을 비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포토존’을 마련해 내외국인 승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27일까지 인천공항과 동계올림픽의 관문 공항인 양양공항을 연결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를 임시 운항한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국제선 승객을 위한 국내선 연결 항공편으로 대회 일정에 따라 다양한 스케줄로 운항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